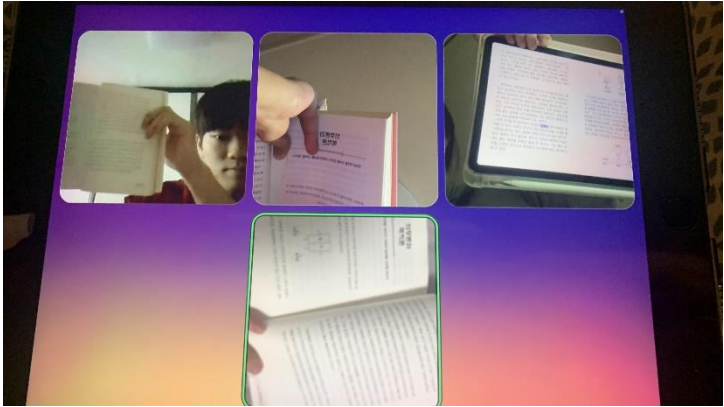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포김하지마

1주차	일시	11월 8일 16:00 ~ 16:50 디스코드(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2331261)	○
		김예진(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지적대화를위한 넓고얕은 지식1	진도페이지: p.326 ~ p.379
토론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김영후, 김예린, 김승현(밑), 김예진]</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 중 윤리 파트에 대해 읽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책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의 관점 중 의무론과 목적론의 관점으로 팀을 나누어 가상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p> <p>주제는 '구명보트 정원은 10명인데, 11명이 탑승해 점점 침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을 버리는 것은 옳은가?'였습니다.</p> <p>김예린은 목적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명보다는 나머지 전체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무론 관점에서 살인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 죽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현은 11명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한 명을 정해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며 한 명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무론 관점에서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살인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므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행해지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예진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덕보다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목적론의 관점에서 토론하였습니다. 도덕도 살아 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윤리이고, 모두가 죽게 된다면 결국 도덕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p>김영후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의무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후는 의무론과 목적론은 종교인</p>		

	과 비종교인(이성인)으로 볼 수 있다 하였고,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것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목적론자들은 한 명을 죽이 자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한 명이 되었을 때 크게 반발할 테지만, 의무론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린이 11명이 한 명을 빠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목숨이 달린 상황 속에서는 이성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말하며 네 명 다 윤리와 상황이 대비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2주차	일시	11월 12일 18:00 ~ 18:50 학정관 스테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2331261)	○
		김예진(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1	진도페이지: p. 295 ~ p. 325	
토론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교수님과 대면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참여 학생은 만나서 하고, 교수님은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김예린, 김승현, 김예진, 김영후 + 손지윤 교수님]</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1 중 사회 파트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 서술하고, 이들이 심해지면 이기주의와 전체주의로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미디어가 생존하기 위한 구조적 한계를 이야기하며 미디어는 정당하고 옳은 이야기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p> <p>우선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 '댐 폭파시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 vs 댐 미폭파 시 도시의 중요 시설 마비 및 안보 문제 커짐'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p> <p>김예린은 개인주의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목숨이 도시 시설 마비보다 중요하다 하였고, 댐 폭파 시 사람을 죽는 건 명확하지만 미폭파 시의 시설 마비는 불확실하다며 좀 더 확실한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승현은 소수의 희생보다는 댐을 폭파하지 않았을 때 겪을 막대한 손실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집단주의의 입장에서 토론하였습니다. 김예진은</p>		

		<p>인명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도시 시설 마비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댐을 폭파하면 안 된다는 개인주의의 입장을 펼쳤습니다. 김영후는 사회는 개인들의 합 이상이고, 개인의 성질보다 사회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댐을 폭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집단 은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을 좀 더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p> <p>이후,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폭력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김예린은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정당히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상속 등 부유층이 될 수 있던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비부유층은 그런 발판이 없기에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으려면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예진은 오히려 발판이나 불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소수일 것이라 하였고, 기구를 통한 기부 등 서민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기에 강제로 세금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승현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진세도 있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많아 이를 전체주의적 폭력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김영후는 누진세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보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유토피아적이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간섭하는 것은 자연권의 침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김예린은 자연권을 통해 상속 등의 부의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길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 하였습니다.</p> <p>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나 소득 수준이 좋지 않아졌고, 이는 자본가가 집권한다면 경제를 더 낮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 하게 만들어서 노동자끼리 힘을 합쳐 경제 성장을 할 수 없게 만든 것 같으며 미디어의 보수화에 대해 피드백해주셨습니다.</p>
--	--	---

3주차	일시	11월 22일 21:30 ~ 22:30 구글 미트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2331261)	○
		김예진(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지적대화를위한 넓고얇은 지식1	진도페이지: p.21~ p.110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영후, 김예진, 김승현, 김예린]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1 중 역사 파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역사를 영웅사관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민중사관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예린은 시대가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해 민중사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지만, 그 배경에는 민중들이 존재하고, 민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영웅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승현은 역사 속 많은 과학자들을 예시로 들며 영웅사관적 시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영웅사관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김영후도 영웅사관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양의 과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동양의 나라들은 과거에 모두 같이 서양에 박해받았다가 현재는 다 다른 양상으로 근대화되었는데, 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들에 의해 바뀐 것이라 하였습니다. 민족의 대표가 선택한 것에 따라 공산국가가 되거나 민주주의국가가 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영웅사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김예진 또한 독립 운동가나 정치가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현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영웅사관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다는 결론을 내며 다음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온 종교는 과연 좋은 것일까?'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김승현은 본인은 현재 무교이고, 종교는 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믿음에 기반한 것일 뿐, 실재하지 않는데 종교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역사부터 현재까지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예진 또한 무교이며, 종교는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책에 나온 사례처럼 종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려먹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며, 전지전능한 신은 허상이고 모두 인간의 계략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김영후는 현재 기독교이며 신을 믿는 입장에서 종교라는 특성 자체가 정치에 악용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 뿐이지, 종교 자체가 정치에 악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종교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고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종교 자체는 인간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이 삶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순 없는데, 종교는 이성의 영역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예린은 신을 믿진 않지만 종교친화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당시 낮았던 윤리의식을 올려준 것이라 생각하였고, 현재에 당연하다 여겨지는 윤리들의 기반을 닦은 것이 바로 종교라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등의 사항들을 전파하며 사람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이 종교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발전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김영후는 생산수단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두 못 먹더라도 다같이 못 먹는 등 공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는 현재의 사회보다 살기 좋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예린은 발전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던 것과 발전한 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질 차이가 클 것이라 이야기하며 발전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승현 또한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보았지만, 김예진은 현재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놀이터만 가서 놀아도 재밌던 것처럼 발전되기 전에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며 발전되기 전이 더 좋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4주차	일시	11월 26일 18:00 ~ 18:50 학정관 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2331261)	○	
		김예진(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지적대화를위한 넓고얇은 지식1	진도페이지: p.111~ p.294	
	토론 내용	 <p>교수님과 대면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참여 학생은 만나서 하고, 교수님은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		
		[좌측부터 김승현, 김영후, 김예린, 김예진]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1 중 정치와 경제 파트를 읽고 파트에 대해 관련된 현실 주제를 조사해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먼저 김승현은 경제 중 세금 관련된 주제인 금융투자세에 대해 조사한 바를 말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과세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22%나 과세하는 것과 기업이나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에는 과세되지 않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승현은 이가 진행된다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국내 주식 거래량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국내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김영후는 금투세를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후기자본주의의 성향을 띠는 제도로 보았고, 보통 정부의 개입은 불평등을 막기 위함인데 이 세금 제도는 우회해서 투자하면 되는 등 허술함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예린은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음을 보고 자본가를 위한 제도일 뿐이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벌게 되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돈이 돌게 될 뿐이고, 이는 불평등에 의한 시장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예진은 세금은 사회취약층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많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부의 재분배 등 사회적인 제도인 점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래도 22%는 너무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김영후는 정치 중 독재주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체제를 갖고 있냐에 대해 조사해보았는데, 일당지배(유일지배)체제와 동시에 북한만의 특이한 공산주의 특징인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p>		

		<p>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는 현재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p> <p>다음으로 김예린은 경제 주제 중 민영화에 대해 조사한 바를 말하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영화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했던 것을 민간에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고, 민영화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의료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승현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는 정책이라 보았고,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영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 진행하게 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비용을 늘릴 것이고, 이는 더욱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예린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제도일 뿐이라며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 미국의 수많은 사상자와 한국의 비교적 적은 사망자를 이야기하며 민영화되면 응급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예진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서비스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국가는 민중을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우선으로 할 것이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많아질 것이라 하며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김영후는 자신이 미국에서 겪은 민영화된 의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병원을 가도 한국보다 서비스 질이 좋지 않았으며,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컸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민영화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민영화로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며 '현재 국가가 지고 있는 부담이 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p> <p>마지막으로 김예진은 경제 주제 중 코맥스 부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해 발표하였습니다. 코맥스는 밀폐 용기를 최초로 생산한 회사로, 5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유지되던 밀폐 용기 생산 업체인데 최근 부도가 났고, 사장이 임원들에게 메시지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슈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예진은 파산신청도 하지 않고 도망가 남겨진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와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 회사라면 경영만 잘했다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분야였을 거라며 경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분야의 회사가 망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가 싶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게 된 케이스라고도 하였습니다.</p> <p>교수님께서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생각을 말해주시며 각 주제에 피드백해주셨습니다. 우선 김승현의 주제인 금융투자세와 관련하여 교수님 또한 학생들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김영후의 주제인 공산주의 나라인 북한에 관해서는 북한은 현재 주변 강대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나라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의 민주주의 체계를 실시하고 있는 강대국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욱 북한이 공산주의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예린의 주제인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기엔 이른 주제인 것 같다고 피드백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김예진의 주제인 코맥스 관련해서는 티맥스라는 회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무리한 사업 확장이 문제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p> <p>추가적으로, 현재 트럼프의 '무조건 미국으로 물건을 팔면 이에 대해 보편관세를 받겠다' & '중국에겐 이에 대해 60퍼센트를 받겠다'라 한 내용에 대해 일종의 쇼맨십이라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제로 60%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압박을 하며 미국의 펜타닐 문제 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p>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예린 (2331261)	독서클럽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회나 윤리 지식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이슈까지 알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 토론하면서 늘 어떠한 주제에는 좋은 점도,

			<p>나쁜 점도 있다는 걸 알며 단면적으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면적으로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또한, 미디어의 보수화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의 경제 부분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신 내용을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기도 해서 저에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며 지식을 넓혀가고 싶게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p>
2		<p>김예진 (2331247)</p>	<p>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을 바탕으로 한 독서 토론은 매우 뜻깊고 풍성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저자의 통찰력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각자가 인상 깊었던 장이나 주제를 선택해 이야기했는데, 특히 '경제' 파트에 대한 논의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에게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결정과 그로 인한 영향은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비유와 사례들은 토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팀원끼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활발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이번 경험을 통해 지식의 넓이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누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p>
3		<p>김승현 (2331251)</p>	<p>이번 독서클럽을 진행하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으로 조원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현대의 상황이나 이슈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토론을 진행하며 알게 되어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p>
4		<p>김영후 (2331092)</p>	<p>요즘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문학 도서라 읽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독서 클럽에 임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독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클럽원들과의 의견을 나눈 후 색다른 방식의 순서로 독서를 진행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책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순으로 소개하고 있었으나, 저희는 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좁고 세분화 돼있는 분야로, 좀 더 간단해 보이는 분야에서 더 복잡한 분야로 차근차근 독서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는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기시키고 분야별로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책 역시 저희가 일상에서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과 접목시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원들 과의 의견 공유도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